

日本에서
일 하는

우리 看護員 들

~친절하고 재주있는 간호원으로~

<소 실 가> 전 영 택

일본 「하마마츠」시에 있는 성예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간호원들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기 전에 먼저 몇가지 기록할 것이 있다.

나는 작년 여름에 약 한달 동안 일본에 여행한 일이 있는데 그 기회에 「하마마츠」라는 곳에 있는 옛 친구 이정렬 장노(李愷烈 長老)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곳에 우리나라 간호원이 여러 사람 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인 이정노와 같이 성예병원에서 수고하고 있는 간호원들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에 간호원들은 자기네들의 사진을 본국 간호협회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가지고 왔다.

그후에 나는 귀국하여 그 사진을 간호협회에 전했더니 얼마 지나서 「하마마츠」에 있는 우리 간호원들의 현황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작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 기사를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자세한 것을 적어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하마마츠」에서 그 간호원들을 돌보시는 이장노에게 몇가지를 물어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그 회답이 매우 늦게 온 고로 그럭저럭 늦어져서 지금에야 쓰게 되므로 오래 지낸 이야기를 쓰게 되어버리서 독자에게와 「하마마츠」에 있는 간호원 여러분에게도 번복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장노가 최근의 사실을 알려주어서 결국 가장 새로운 사실이 되었다.

「하마마츠」성예(聖隷)병원에서 수고하고 있는 간호원들은 새작년(1965년)에 16명이 갔으나 작년에 한 사람이 가정 사정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간호원 15인 조수가 3명 합해서 18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徐貞愛(慶南) 鄭正子(慶南) 俞蓮海(慶北) 朴京子(全南) 柳令愛(全北) 朴幸子(全北) 金明淑(忠南) 朴世娟(忠南) 鄭聆子(忠南) 美淑女(黃海) 金貞姬(黃海) 鄭壽得(平南) 崔貞姬(平南) 金奉姬(平北) 慶一秀(江原) 陳峰子(咸南) 陳京姬(咸南) 金吉洙(서울)

(그중의 陳峰子, 陳京姬, 金吉洙 세 사람은 조수로 일하는 사람임)

그 가운데 徐貞愛양은 「세부란스」 출신으로 현재 봉사단원의 자치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나는 그곳에 간 길에, 언어와 풍속이 다른 외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나라 간호원들을 방문하려고 하루 저녁 이정렬 장로와 같이 성에법원을 찾아갔다.

먼저 병원 전경을 대강 살펴 보고 나중에 우리 간호원들이 유숙하고 있다는 기숙사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나는 기숙사를 찾기 전에 이 장로에게 병원 설립자는 이사장인 장곡전(長谷川)씨이고 그 병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들었다.

그는 현재 일본 증의원 의원(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으로 본시는 일개 이름없는 「크리스천」 청년이었다. 일본이 전쟁에 패하자 여러가지로 비참한 사정이 많은 때이었다. 그는 자신도 빈한한 처지에 있으면서 남을 도우려는 정신이 많았다. 하루는 거지에서 쓰러진 병인을 발견하였다. 꽤 절색 환자로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어서 병과 굶주림으로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 병자를 우선 자기 처소에 업고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생긴 50원을 가지고 판자집을 한칸 세웠다. 판자집에 그 병자를 수용해 가지고 돌보는 동안에, 같은 처지에 있는 병자가 몇사람 늘었다.

그는 근처에 있는 교회의 목사 한 사람과 힘을 합쳐서 병자들을 돌보기를 힘썼다. 그것이 「하마마크」에 성에병원을 설립하게 된 출발이요, 지금도 병원 구내에 그 판자집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것을 자기의 고전장(古戰場)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하던 일터란 말이다).

장곡전씨는 교회 장로로서 국회의원으로 성에병원을 설립 경영하는 이외에 성예요양소, 성에후생원 (퇴원한 환자의 직업보도기관) 그리고 성예고등간호학교, 보육원, 정신박약 아동보육원, 은퇴목사홈 등 여러가지 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귀한 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간호원의 행복스러운 처지를 생각하고 우선 감사하였다.

이장로의 소개로 방문하러온 나를 마지해 주는 몇 간호원의 기색이 꽤 명랑한 것을 보고 우선,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

나는 먼저 간호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의 숙소인 기숙사로 들어갔다. 한국서 온 간호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깨끗한 사교실겸 독서실로 쓰는 방으로 들어 앉아서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나는 우리 간호원 몇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기숙사의 각방을 살펴보았다. 그중에 어떤 방에서는 우리 간호원 한 사람이 이장로에게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한국 간호원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 주었다는 주방을 보았다. 음식풍속이 달라서 어렵겠다고 따로 한국 음식을 해박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거기서 마음대로 김치를 달가 먹는다는 간호원들의 얼굴에는 자못 만족한 빛이 보였다.

다음에 나와 이장로는 서정애양의 초대로 식당에 가서, 일본서는 값진 음식으로 치는 「뽕뿌라」(튀김)로 저녁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숙사 안에 있는 사교실로 갔다. 거기에는 우리 간호원 전원이 가득히 모였다. 이장로는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서양은 그들의 성명과 고향을 차례차례 소개하였다. 그리고 다같이 찬송가를 불렀다.

다음에 나는 성경을 한결 읽고 잠시간 위트와 격려의 말을 하였다. (어

디든지 믿는자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랑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지낼 것과 한국을 대표한 사람들이니만큼 일본사람에게 흠을 잡히거나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흥미를 발도록 힘쓰기를 권하였다.

그 자리에는 우리 교포로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는 임길호씨도 참석하였다. 본래 그 병원에 입원했던 인연으로 한주일에 이삼차씩 와서 일본어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였다.

나는 우리 간호원들이 일본어의 통화가 곤란치 아니한가를 물었더니, 처음에는 좀 곤란하였지만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또 모두 재간들이 있어서, 지금은 능통치는 못하나마, 환자들 취급하는데 있어서나 동료끼리 서로 연락하는데 있어서 별로 불편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어 공부한 사정을 들어 보니 처음에는 위에 언급한 이정렬 장모와 임길호씨 두분에게 밤마다 몇시간씩 배웠고 그리고 그후부터는 각자가 자기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배워가는 형편이라고 한다.

다음에 병원에서 지내는 형편은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전 직원이 모여서 기도회를 보는데, 우리 간호원은 특별히 힘써 참석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우리 간호원들이 일본 성경을 제



<일본에 있는 우리 간호원들>

법 잘 읽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병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일본 간호원들이나 못지 않게 친절하게 하고, 성의껏 대하기 때문에 간호방법이나 주사같은데 환자들의 환영을 받고, 환자나 가족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많은 환자 가운데는, 한국 간호원이 아니면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한국의료봉사단이 일본에 건너가게 된 동기를 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우리 한국자유감리교 목사로, 자

유 중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김운표(金雲杓) 씨가 일본에 들어서 당시 일본에서 병원과 의료사업에 의사와 간호원이 부족해서 곤란한 형편을 들었고 다시 그후에 귀국하여 일본 병원에서 간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당시 원장이던 장복천씨에게 교섭하여 피차에 합의된 것이며 현재 간호원 15명과 조수 3명 전부 18명이 서로 애끼면서 형제같이 정답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본국 보다는 낮지요”하면서 웃기만 하고 자세한 액수는 말하지 않으니 알 수 없다.

그 병원의 설립자 장복천(하세가와)씨는 국회의원으로 여러가지 자선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나와서 일을 보지 못하고 「나가야마」(中山) 의학박사가 원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원원장도 훌륭한 신자로 지금은 터키 국립대학 뇌신경외과 특별강사로 초빙을 받아 출장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의사나 직원들이 거의 신자로 병원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한다.

내가 잠시 방문했을 때에도 그들은 모두 고향에서 온 어버이처럼 반가워하고 올 때에는 피차에 섭섭한 정을 금치 못했다. 끝으로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 뿐이다.